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9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3일 (음력 3월 18일) 목요일

'19명 사상' 영암 교통사고

미니버스가 옆차선 SUV차량 먼저 충돌 추정

경찰·도로교통공단·국과수 합동 현장감식

블랙박스 전문가 의뢰해 정확한 속도 등 분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암 미니버스 사고와 관련, 미니버스가 나란히 달리던 SUV차량을 먼저 충돌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현장감식과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암경찰서는 2일 미니버스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1차 유안 분석했으며 2차로 달리고 있던 미니버스가 1차로를 주행중이던 SUV 차량을 먼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니버스의 앞부분이 SUV차량 조수석 부분과 접촉한 모습이 확인됐으며 부딪히는 소리도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됐다.

이후 미니버스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뀌어 30m 정도를 더 달렸으며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뒤 2m 아래밭고랑 사이로 추락했다.

최초 충돌 지점부터 2차 가드레일 충격 지점까지 스키드 마크도 발견됐다.

미니버스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SUV차량 뒤쪽에서 주행 하고 있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 된 것으로 전해졌다.

SUV차량의 블랙박스는 고장으로 인해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니버스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전문가에 의뢰해 정확한 속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도로교통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니버스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미니버스가 SUV차량을 먼저 충돌한 뒤 갓길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 안전벨트 착용 여부, 차량 속도, 졸음·음주운전 등 전문



2일 영암군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경찰,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니버스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영암군 신북면 주암삼거리 편도2차선 도로에서 15명이 타고 있던 미니버스와 SUV 차량(4명 탑승)이 충돌

해 미니버스 차량 운전자 이모(72)씨 등 8명이 숨졌다. 또 미니버스 탑승객 7명과 SUV차량 4명 등 11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평화의 적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평화의 적 0이라며 '홍 대표 정계 퇴출을 위해 정권기 힘 모으자' 고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홍 대표가 한국당 대표로 있는 한 국회 혁신은 존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힘을 합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도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어렵사리 파운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다"며 "이 씨앗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음모를 유일하게 홍 대표만 갖 파이어너스까지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지방선거 전이라도 홍 대표 퇴출을 위해 정권기 힘 모을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한국노총 전남본부 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화순서 근로자 등 600여명 참여 노동의 의미 되새겨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1일 제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화순 도곡원네스 리조트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가졌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구공곤 화순군수 박영덕 화순경찰청장, 근로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다.

근로자들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서 자력으로 풀린 힘의 균형추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전남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이신원 의장은 기념사에서 "한국노총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마침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단계적 상승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고 고용불안에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숫자나 기호로 인상된 임금이 아니라 실질적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전남지사민한대행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신 전남노동자들에게 경

의를 표하고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산업 현장에 활기와 정이 넘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전남경총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저성장 고착화 현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이렇수록 전남 노사가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동안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노사민정 산업평화실천선언을 하는 등 지역 노동계를 대표하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손종대 한국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이 철강산업훈장을 비롯해 120명의 모범 노동자들이 한국노총 위원장, 전라남도지사, 전남경찰청장, 노동청장, 전남경총회장,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남규 기자

2018 원도

정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2018

공식행사 4.14(토) 14:00~

느림의 타종식
오색가래떡 나눔잔치
나비아 청산가자

©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힐링토크(11시~12시)
식전공연 - 여행스케치 외(1시~2시)

2018. 4. 7(토) ~ 5.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일원

2018 원도

정보고수산물축제

2018. 5. 4(금) ~ 5. 7(월)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청해진유적지 일원

- 5.4(금) 완도군민 화합 한마당, 군민화합 가왕 선발전
- 5.5(토) 218m 해조류감발 만들기, MBC TV 축하쇼
- 5.6(일) 김제동 · 이승환의 라이브 Show
- 5.7(월) 전남 독립국악단 특별 초청공연